‘황금장갑’ 수상 양현종 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

〈정규시즌 MVP·한국시리즈 MVP·골든글러브〉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유격수 김선빈 ‘생애 첫’
2루수 안치홍 6년만에
외야수 최형우·버나디나 등
KIA 5개 부문 수상자 배출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트리플 크라운’으로 2017시즌의 대미를 장식했다. ‘챔피언’ KIA는 양현종을 비롯해 5명의 수상자를 무대에 세웠다.

KIA 양현종은 1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다. 프로야구 사상 첫 통합 MVP에 빛나는 양현종은 각종 시상식 트로피에 이어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쥐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양현종과 함께 유격수 김선빈도 생애 첫 골든글러브의 기쁨을 누렸다. 또 2루수 안치홍, 외야수 최형우·버나디나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KIA는 5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했다.

5명의 선수가 동시에 골든글러브를 받은 것은 1986년과 1988년에 이어 타이거즈 역사상 세 번째다. 타이거즈 구단 최다 배출은 1991년에 기록된 6명이다.

‘트리플 크라운’을 이룬 양현종은 “옷을 화려하게 입었는데 못 받았으면 창피할 것 같았다(웃음). 이 자리에 서게끔 도와주신 허영택 사장님, 조계현 단장님, 김기태 감독님에게 감사하다. 동료, 선후배님도 감사하다”고 말한 뒤 “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며 자신의 버팀목이 되는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도 전했다.

안치홍은 ‘9표 차’의 접전 속에 2011년에 이어 6년 만에 ‘황금장갑’을 차지했다. 안치홍은 140표를 얻어 박민우(134표)와 6표 차에 불과했다.

시상대에는 지난 9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난 안치홍을 대신해 김민호 수비코치가 섰다.

“별거를 다 시킨다”며 웃은 김민호 코치는 “골든글러브를 한번 받았는데 허리를 다쳐 입원해서 아내가 대신 받았다. 안치홍 선수 덕분에 (이 자리에 섰다)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안치홍은 성공을 준비하는 선수 같다. 전날 안타를 못 쳤을 때는 먼저 나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준비한다. 치홍 선수가 흘리는 땀은 피 같은 땀으로 보인다. 값진 상이 될 것 같다”고 축하했다.

‘타격왕’ 김선빈은 유격수 부문 수상자로 활짝 웃었다. 김선빈은 2003년 홍세완 이후 14년 만에 타이거즈 유격수 골든글러브 수상자 계보를 이었다.

김선빈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다. 상을 받게 도와주신 감독님과 코치님에게 감사하다. 곧 꽃빈(태명)이가 태어나는데 좋은 상을 주셨다. 자랑할 것이 생겼다. 군대에 갔던 2년 동안 고생했던 와이프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KIA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야수 세 자리 중 두 자리를 차지했다. 외야수 남은 한자리는 롯데 손아섭의 몫이 됐다.

2년 연속 시상대에 오른 최형우는 “감사드린다. 항상 변함없는 한결같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고 굵은 소감을 말했다.

버나디나는 김태룡 주루 코치를 통해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큰 영광이다. 팀원을 비롯해 감독님 코치님 덕분에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고생한 도영빈 통역과 열정적인 KIA 타이거즈 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대신 전했다.

한편 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빅보이’ 이대호(롯데)가 1루수 수상자가 됐고, ‘홈런왕’ 최정(SK)은 총 유효표 375표 중 326표를 싹쓸이하면서 3루수 부문 수상자가 됐다. 강민호는 삼성 소속으로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가져갔고, LG 박용택이 지명타자 부문 수상자가 되면서 팀은 4년 만에 무관에서 탈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골든 포토상을 수상한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사진과 같은 포즈를 취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KIA 안치홍(2루수) 대리 수상 김민호 코치·김선빈(유격수)·양현종(투수), 롯데 손아섭(외야수), KIA 버나디나(외야수) 대리 수상 김태룡 코치. 뒷줄 왼쪽부터 KIA 최형우(외야수), 롯데 이대호(1루수), 삼성 강민호(포수), SK 최정(3루수), LG 박용택(지명타자). /연합뉴스

스무살 이정후 ‘억대 연봉’
307.4% 오른 1억1천만원

2년차 최고 연봉… 넥센 “팀내 최고 인상률 타이”

KBO리그에 거센 바람을 일으켰던 이정후(19)가 ‘연봉 대박’으로 활짝 웃었다.

넥센은 13일 “이정후와 올해 연봉 2700만원에서 307.4% 상승한 1억1000만원에 2018시즌 연봉 협상을 마쳤다. 이는 작년 신인왕 신재영의 연봉 인상률과 동일한 팀내 최고 연봉 인상률 타이”라고 밝혔다.

뛰어난 선수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넥센은 연봉 상승률 300%를 넘는 선수가 끊이지 않는다.

김하성은 2016년 연봉 협상에서 인상률 300%(4000만원→1억6000만원)를 기록했고, 신재영이 2017년 27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307.4%가 올랐다.

올 시즌 이정후는 정규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해 타율 0.324(552타수 179안타), 2홈런, 47타점, 111득점, 12도루를 남겨 여유 있게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역대 KBO리그 신인 최다 안타이자 최다 득점이다.

내년 20세로 ‘억대 연봉’ 선수가 된 이정후는 “생각보다 빨리 억대 연봉을 받게 돼 신기하고 기쁘다. 구단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장석 대표팀과 스카우트, 감독, 코치님,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풀타임으로 뛰며 프로는 역시 다르다는 걸 느꼈다. 자신감을 얻을 기회이기도 했다. 진짜 평가는 내년부터라 생각한다. 스프링캠프에 대비해 근육량을 늘리고 힘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재활 양학선 “내년 2월 국가대표 도전”

‘도마의 신(神)’ 양학선(25·수원시청)은 요즘 훈련장과 병원을 오가느라 바쁘다.

3년째 자신을 괴롭히는 오른쪽 허벅지 근육통(햄스트링) 치료를 위해 매일 서울 강남구 역삼로의 한 재활의학과 병원을 찾는 양학선은 “주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그는 2012년 런던올림픽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내 한국 체조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시상대 맨 꼭대기에 섰다. 그러나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발병한 햄스트링 통증 탓에 양학선은 국제 대회에서 모습을 감췄다. 지난해엔 아킬레스건마저 수술해 올림픽 2연패 꿈도 접었다.

양학선은 3년간의 재활을 거쳐 지난 10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주 종목인 도마에서 1, 2차 시도 평균 15.283점을 획득해 경쟁자를 압도하며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지만, 결선 직전 훈련에서 다시 햄스트링 부상 악화로 대회를 아쉽게 접었다.

양학선은 “남들보다 더 뛰고 정말 열심히 훈련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됐다. 이젠 국제 대회에서 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햄스트링 부상이 오래갈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최근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셔서 자신감을 많이 되찾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행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차도가 생겼다.

양학선은 “최근까지 재활 프로그램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은 조금씩 훈련 페이스를 올려가는 중이다. 내년 2월 대표선발전을 겨냥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선발전을 준비하겠다. 기술 연기는 자신 있는 만큼 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고 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급 기량을 재확인한 만큼 완벽한 부상 관리가 양학선의 선수 생명을 지탱할 열쇠다.

대한체조협회는 16~17일 대표 선발전을 개최해 내년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과 10월 세계선수권대회를 일찌감치 준비한다. 이후 2018년 2월, 4월, 6월, 8월 네 차례 대표 선발전에서 대표 선수를 최종적으로 추린다. /연합뉴스

내일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2017년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가 15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 1층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지휘한 강대성(동성중), 양윤희(서석초), 김승남(진흥중), 나길남(충장중), 류창희(수창초), 윤현필(명진고)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한다.

우승의 주역 최지강(동성중), 하상욱(서석초), 박성역(진흥중), 류민승(충장중), 정우빈(수창초), 김아영(명진고)은 최우수선수상로 단상에 오른다.

전광진(충장중), 서하은(대성초), 정주영(진흥중), 송진형(수창초)는 최우수타격상(협회장상)을, 한지운(충장중), 김유현(서석초), 김주홍(진흥중), 김인우(수창초)는 우수타격상(동우회장상)을 받는다.

또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최봉섭 부회장, 구한성 이사, 신향미 이사, 충장중 정길분 교장에게는 공로패가 주어진다. KIA 우승을 이끈 허영택 대표이사와 김기태 감독, 두산 내야수 허경민은 감사패를 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